

“광주시 과다할 정도로 인력·장비 선제적 확보해야”

광주·전남 코로나 추가 확진자 발생에 지역민들 긴장 지역 의료계 “수차례 경고 불구하고 반영된 게 없어 우려”

광주의 감염병 전문 의료인들이 수차례 경고했던 코로나19의 광주·전남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의료계의 거듭된 방역시스템 강화 요청에도, “일주일째 확진자가 없다”며 선제적 방역정책을 소홀히 했던 광주시는 추가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3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지역 의료계는 “이미 예견된 일로, 앞으로 당분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호남 의료거점도시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재정비를 비롯해 과도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광주 12명·전남 4명 등 총 16명이다. 광주는 지난달 23일 9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지만 이날 한꺼번에 3명이 추가됐다. 특히 추가 발생자 중 2명은 확진 판정이

내려진 당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교회 계단교회 예배장(백서로 73)에서 주일에 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동부권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3일간 하루 한 명씩 순천·여수·광양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지난달 28일에는 순천지역 한 병원 간호사(여·25), 29일에는 대구에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여수 분가를 내려온 남성(22) 그리고 지난 1일에는 광양에 사는 주부(36)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 입원병실에 격리됐다.

순천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15~16일 대구 방문을 했고, 여수 환자는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전남 4번째 확진자인 광양 환자는 최근 집을 다녀간 울산 시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오전 9시40분 환자 시부모가 양성 판정을 받아, 울산 동구보건소가 12시에 아들(환자 남편) 가족 4명이 접촉자라는 사실을 광양시에 통보했고, 광양보건소가 오후 1시 자택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오후 8시37분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증세는 기침, 오한, 인후통이었고 지난달 26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달 24일, 남편은 27일 이후 줄곧 집에 머물러 접촉자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 환자의 남편 직장이 광양제철소로 파악되면서 한때 제철소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편과 두 아들은 코로나 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광양제철소는 소독 등 방역조치만 하고 정상 가동 중”이라며 “추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 방역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시 신속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광주의 한 감염병 관련 전문 의료인은 “지역 의료인들이 광주시 수차례에 걸쳐 선별진료소의 문제점과 진료 중심의 컨트롤타워 개선 방안, 대학산에 대비한 과다할 정도의 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게 거의 없다”면서 “당분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행정절차나 책임 여부 등을 따지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추가 확진자 발생 교회 주변 방역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2일, 확진자 중 1명이 다녀간 교회 주변의 상점이 자체적으로 방역업체에 의뢰해 방역을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학부모 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전남도교육청, 281개 유치원 휴업기간 긴급돌봄 운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3일로 2주 더 연기되면서 교육 당국이 긴급 돌봄과 학사일정 관리 등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 초등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며, 일하는 학부모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려고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소독과 방역도 강화된다. 하루 2차례씩 발열 체크도 진행된다.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달 첫 주에 담임과 학급 배정을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에듀넷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3월 둘째 주부터는 학교별 온라인 학습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 학급 방을 개설해 과제 등을 점검한다.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SNS 단체 대화방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들에 휴원 연장을 권고하고 학교 체육 시설 개방 금지 기간도 22일까지 미뤘다.

전남도교육청도 신입생을 포함한 초등 학교 전 학년과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휴업 기간 내내 긴급 돌봄을 운영한다.

도내 유치원은 전체 495개 가운데 56.8%인 281곳이 참여해 2855명의 원아들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등 학교는 429개교 중 65%인 279개 교에서 3255명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코로나 중증환자 수용 거부 시·도 처벌”

“환자 치료는 국가 공동 책임”

정부가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을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증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도가 환자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병상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환자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타지역에 이송할 때 사·도와 협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환자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도가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일지원상황실이 환자 전원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이송 사실은 추후에 사·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그럼에도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환자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내에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6.2조 편성...중기·소상공인 경영자금 2조 확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반영 당정, 17일까지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경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저차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산·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

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준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준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당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